

선운사 첫차 수확 '헌다레' 의식

정성·존경·사랑의 선운삼다레 의식 재현

조선과 지역 어르신, 이웃에게 고 마음을 전하고 첫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헌다레가 6월 6일 고창 선운사에서 개최됐다.

'2010 헌다레'는 첫차를 따는 제다, 전통의식으로 부처님께 차를 올리는 육법공양,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조상께 차를 올리는 헌다, 이웃에게 차를 올리는 진다, 이웃과 함께 차를 나누는 행다와 차근래, 작별례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문화협회 전북지부가 주관하고 전북 교육청의 후원한 행사에는 군산여고, 고창 강호항공고, 고창고교생 108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조상께 올리는 정성, 어른께 올리는 존경, 이웃과 나누는 사랑의 선운삼다레 의식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재현해 우리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계승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헌다례에는 조선 시대, 종묘 제향에서 첫 잔을 올리는 일을 맡아보던 제관인 초헌관(初獻官),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제관 아헌관(亞獻官), 세 번의 잔 가운데 마지막 잔을



고창 선운사에서 진행된 2010 헌다례에 참여한 군산여고, 강호항공고, 고창고교생 108명이 헌다례 의식을 직접 재현하고 있다.

올리는 제관 종헌관(終獻官), 제사 때에 축문을 읽는 축관(祝官)이 찬조 출연해 부처님과 조상께 차를 올리는 전통 육법공양이 재현됐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청소년들이 헌다례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을 이해하며 환경과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계

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헌다례에 앞서 하인거 포살법회를 대웅보전에서 봉행했다.

도한 스님은 "무료 진료를 통해 지역 어르신의 건강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노인 확대프로그램을 통해 노인화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많은 지역 어르신

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할 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선운사는 녹차관련 고서인 <부풍향차보>에도 언급돼 있는 차의 명소로 전라북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10만 여 평 차밭이 조성된 전북 최대, 최고의 전통녹차 자생지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스리랑카 스님 초청 나주 심향사 법회

스리랑카 스님이 한국을 방문해, 스리랑카 근로자들을 위한 법문을 펼쳤다.

나주 심향사와 비단고를 지혜나눔 사랑회(대표 원광, 심향사 주지)는 6월 6일 아푸라리에 라마나 페로(Ven. Athuraliye Rathana thero, 현 스리랑카 국회의원, 환경부 차관) 스리랑카 스님을 초청해 한국에서 근로하는 스리랑카 근로자를 위한 특별 법회를 진행했다.

심향사에서 봉행된 특별 법회에는 전남지역 스리랑카 근로자 50여 명이 동참했다.

특별법문은 일반 법요식, 팔리어 진언, 스리랑카 법문으로 진행했다.

아푸라리에 라마나 페로 스님은 이날 법문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참답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꾸는 지름길"이라며 "한국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잘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법문에 이어 심향사 경내에 있는 스리랑카 불상에 참배와 재한 스리랑카 노동자와의 대화를 통한 고충과 민원을 들었다.

한편, 원광 스님은 오는 가을에 스리랑카에 답방을 갈 예정이다. 062-334-2880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처님 진신사리 만다라' 유유암 주지 종오 스님

최첨단기법으로 정밀 재현

"불자들에게 공경과 예배의 대상이자, 또 하나의 예술품으로 승화되었으면 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만다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광주 유유암 종오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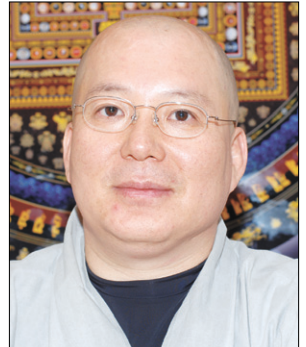
종오 스님은 역대 불교성인 39위의 사리 3000여점을 최첨단 장비와 초정밀 기법으로 재현해 깨달음의 세계를 성화(聖畵) 만다라로 표현 제작한 주인공이다. 종오 스님의 '부처님 진신사리 만다라'는 다양한 불교 문양과 그림, 문자 등을 직접 일일이 손으로 그려 재창조해낸

자 마치 부처님을 직접 마주한 것과 같은 기쁨과, 깨달음에 대한 열망으로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말했다.

'마이트레아 프로젝트 심장전'의 책임자인 카르멘 스트레이트 씨는 당시 종오 스님과 동행했던 광주방송 박종삼 촬영감독에게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불교성인 39위 사리 3000점을 최첨단기법을 통해 재현하여 보관하고자 한다"며 협조 요청했다. 이 협조요청은 "어떻게 하면 당시의 감동을 불자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팔각원형 디자인의 만다라.



종오 스님

하나의 뛰어난 불교 작품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다.

'부처님 진신사리 만다라'는 중앙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주변에 가섭불, 목련존자, 사리불, 용수보살, 라후라 존자 등의 사리를 배치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퍼지는 팔각원형 디자인에 부처님과 500여아란 사리를 배치하고, 지난 2006년 봉납된 성립 스님 사리도 불인애 가정에서도 쉽게 역대 성인들의 사리를 친견할 수 있다. '부처님 진신사리 만다라'는 인도 쿠시나가르에 152m 높이의 티루볼상 심장부에 3000여 점의 사리를 안치하는 불사인 '마이트레아 프로젝트'에도 담길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이 '부처님 진신사리 만다라'를 만들게 된 것은 2008년 5월 '마이트레아 프로젝트' 특별전시관에서 열린 '티루볼 프로젝트 심장전(心臟殿) 사리 투어'를 관람하면서다. 종오 스님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직접 보지마

스님에게 전달됐다.

종오 스님은 출가 전 관련 회사를 운영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부처님 진신사리를 직접 초정밀 기법을 통하여 재현하는 데 성공하게 됐다. 종오 스님은 최첨단 특수장비를 이용해 부처님 진신사리와 불교 성인 39위의 사리를 재현해내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스님은 작업 내내 "작업하는 내내 기쁨으로 흥만했다"며 "비록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인도 쿠시나가르에 봉안되지만, '부처님 진신사리 만다라'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최근 전국 사찰과 포교당에서 전통과 현대의 과학기술이 접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다. 미디어 법원의 활성화와 부처님을 홀로그램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빛고를 광주 특성을 살린 빛의 법당 등을 계획하고 있다. 02-3275-0108,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효, 아름다운 사회 캠페인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건강나눔 의료봉사



고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한 노인학대예방캠페인에서 노인학대 예방수칙 알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주민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도환)은 6월 6일 복지관에서 400여 농어촌지역 저소득 어르신에게 '건강나눔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열린사회 소속 의사와 간호사 등 5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진행한 이번 행사는 내과, 외과, 한방, 치과, 혈액검사, 약 처방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9일 고창터미널 앞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족사랑캠페인'을 실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향 방문 프로그램

광주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좋은세상(대표 김진희)과 공동으로 7~9월까지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고국을 방문, 친정부모 한국초청 행사를 개최한다.

본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이주여성 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6~20일 접수를 받는다. 행사는 7월에 모국 방문, 9월에는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할 예정이다. 선전된 이주여성가족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교통비, 여권·비자 발급, 가이드인솔 등을 해준다.

한편 이번 행사는 3월 분지 후원된 다문화열린강좌 수의급과 기업과 단체 후원으로 진행된다. 062-962-3395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문빈정사 문수 스님 추도법회



광주 문빈정사 주지 법선 스님이 문수 스님 극락왕생 추도식에서 헌향을 하고 있다.

4대강의 뚝 생명을 위해 소신공양을 한 문수스님의 추도 법회가 광주에서 열렸다. 광주 문빈정사(주지 법선스님)는 6월 4일 문빈정사 극락전에서 문수스님의 극락왕생 발원 의식과 추도식을 봉행했다.

추도식에는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장 현지 스님, NCC 인권위

원장 장현권 목사, 광주전남진보연대 대변인 김상인 대표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법선 스님은 추도사에서 "문수 스님의 뜻을 이어 받아 불자들은 4대강 사업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어려워, 장사가 너무안되어,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중고 불경기에도 흥망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지붕 밑에서 동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집구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만능의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집구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 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풀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고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무동산중개소, 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목장,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영사무소, 인경점, 신발매점, 전자제품매점, 미용실, 방앗간, 공방, 주유소, 신사교와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자동차용 호신불

차량사고 예방과 생명보호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물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 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이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 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가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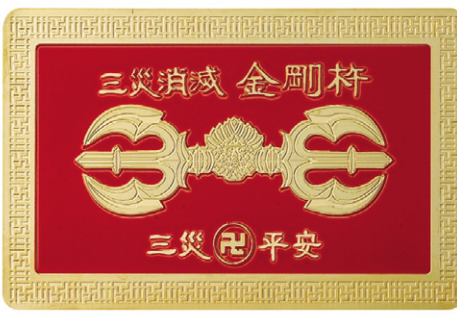
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증상으로 편팔이 없는 오늘날도 안병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자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 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어서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톱 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풀 위가 있다. 고급케아 전에도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45,000원 (사찰스님 30% 할인)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시작 조심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묶는삼재 2012년 나가는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 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저중자에게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약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 약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몰래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저중자에게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 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하고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급속에 평생 냉고 다니면 된다. 가격 : 45,000원 (사찰 공금 가격 별도 상담)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